



즉시 배포용: 2024년 5월 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병원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기후 행동 시범 사업 프로그램에 착수

자발적 시범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회복력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한 NYSIF 보험 병원은 기후 행동 계획을 계획하고 구현하기 위해 최대 100만 달러까지 프리미엄 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

주지사는 또한 폭염과 근로자 건강 및 안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NYSIF 보고서를 발표 - [여기](#)에서 확인 가능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공약을 토대로 구축

Hochul 주지사는 오늘 기후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해결하는 동시에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병원을 위한 전국 최초의 [자발적인 기후 행동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극한 기후 상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여 직장 내 부상 및 질병의 급격한 증가에 기여하는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뉴욕주 보험 기금 보장 병원에 최대 100만 달러의 보험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 시범 사업은 뉴욕 주민을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공약과 주지사의 기후 어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해 2025 회계연도 제정 예산에서 확보한 최근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 프로그램은 병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뉴욕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보험 정책 활용부터 올해 예산의 혁신적인 투자까지,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YSIF 전무이사 겸 CEO인 **Gaurav Vasis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부문은 글로벌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으며,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시스템 중단에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이고

극심한 더위로 인해 근로자 부상 및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NYSIF는 혁신적인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근로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병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의료 산업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으로,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전 세계 의료 산업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병원은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GHG 기여자이며, 대부분의 배출은 구매한 에너지, 마취제, 의약품, 식품 및 일회용 플라스틱 의료 및 수술 용품을 통해 공급망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시범 사업 프로그램은 NYSIF의 병원 보험 계약자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링, 보고 및 감소시키고 기후 관련 혼란에 맞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 행동 계획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할 때 근로자 보상 보험료에 대해 보험당 최대 100만 달러까지 5%의 선불 공제를 제공합니다. 선불 공제는 병원이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향후 배출 감소 및 회복력 전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할 것입니다. 보험당 최대 100만 달러까지 5%의 지속적인 보험료 공제가 매년 병원에 제공되어 계획된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원은 지속적인 공제와 배출량 감소로 인한 절감액을 직접적인 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기후 관련 혼란에 대한 회복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병원 GHG 배출 감소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NYSIF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극한 기온과 작업자 안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NYSIF의 획기적인 보고서인 기후 행동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보험(Insurance as a Catalyst for Climate Action)을 발표했습니다. 약 95,000건의 청구를 포함하는 분석은 주요 학술 연구와 일관되게 폭염일에 직장 부상 및 질병의 빈도와 심각도에서 더 높은 상관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열지수가 80°F를 넘으면 청구로 인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45% 더 높고 심각도가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SIF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프리미엄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 기후 행동 계획에서 마취제, 의약품, 식품, 일회용 플라스틱 및 의료 용품 공급망에서 생산되는 배출을 포함하여 직접 및 간접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공급망 취약성 및 우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병원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체 배출 정보를 설명하고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병원 조달 접근 방식의 개요를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직원과 병원 주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 장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리미엄 공제 외에도 이 시범 사업은 기후 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 리소스 및 교육을 포함하여 NYSIF의 위험 통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로도 열어줍니다. 이 서비스는 참여 병원, 특히 소규모 및 시골 병원이 기후 위험을 완화하고 직원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YSIF는 또한

병원들이 배출량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면서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포럼을 만들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NYSIF의 현재 및 장래 근로자 보상 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병원의 의지를 입증한 기간 동안 보험료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 프로그램은 참여 병원에 대해 수억 달러의 누적 보험료 공제와 비용 절감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치료 및 건강 결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NYSERDA 청장 겸 CEO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은 병원을 포함한 뉴욕주 전역의 건물이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NYSIF 이니셔티브는 병원이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하고, 배출 제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 임시 국장인 Sean Mah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보험 기금의 병원을 위한 새로운 보험료 신용 프로그램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기후 목표 달성의 진전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의 핵심입니다. 병원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공급업체가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주 전역의 병원이 심한 폭풍과 극한 기후에 대한 회복력 향상의 이점을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 보건부 국장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기후가 변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공공 및 개인 건강에 대한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온 상승은 열사병 발생률 증가, 대기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불, 라임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매개체 매개 질병의 확산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병원은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최고의 최전선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이 획기적인 시범 사업 프로그램은 병원이 직장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장기적인 기후 솔루션에 전념하도록 장려합니다."

뉴욕주 AFL-CIO 회장 Mario Cilent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심한 더위 조건은 근로자의 질병, 부상, 때로는 사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시범 사업 프로그램은 좋은 시작입니다. 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NYSIF에 박수를 보냅니다."

NYSIF 소개

약 200,000명의 보험 가입자, 19억 달러의 연간 보험료,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NYSIF는 뉴욕주 최대의 산재 보험사이자 전국 10대 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NYSIF의 임무는 용해력 있는 자금을 유지하면서 뉴욕 고용주에게 최저 비용으로 근로자

보상, 장애 보험 및 유급 가족 휴가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914년 창립 이래 NYSIF는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와 경쟁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고용주를 위한 보장 소스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완수해 왔습니다. NYSIF는 부상당한 근로자를 위한 최상의 건강 결과를 달성하고 뉴욕 고용주를 위한 가격, 품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업계 선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nysif.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ochul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뉴욕주의 기후 어젠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녹색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40%를 목표로 최소 35%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향하도록 하는 질서 있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뉴욕은 New York Cap-and-Invest program (NYCI)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2050년까지 85 퍼센트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성 70% 등 2040년까지 무배출 전기 부문의 필수 목표에 도달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초석은 뉴욕주 전역의 64개 대규모 재생 및 송전 프로젝트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자, 건물 배기 가스 감축을 위한 68억 달러 이상, 태양광 확장 33억 달러, 청정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약 30억 달러, NY Green Bank의 20억 달러 이상의 약정 등 전례 없는 청정 에너지 투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투자를 통해 2022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17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3,0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뉴욕은 또한 2035년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무배출 차량으로 제한하는 등 무배출 차량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등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400곳, 인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130곳 이상,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ies) 약 500곳, 뉴욕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대기 질 관리 이니셔티브 참여 지역사회 10곳 등 대기 오염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뉴욕주 기후 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